

대구주보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16.12.11.(가해) 제2029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용계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11,6)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선 주일이기도 한 오늘,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라는 요한의 권고를 새기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이사 35,1-6ㄴ,10

제2독서 야고 5,7-10

복음 마태 11,2-11.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서문시장 화재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

배상희 마르첼리노 신부 | 다사본당 주임

오늘 강론의 주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기다림의 시기인 대림 3주일은 성탄이 가까워졌음을 희망하고 기뻐하는 **장미 주일**입니다.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행위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행위로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폭격으로 파괴되어 버린 성전은 깨어진 벽돌 더미와 유리 조각만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절망과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전공사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벽돌과 유리 조각 더미 속에서 성전에 모셔져 있었던 큰 십자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두 손만 떨어져 나갔을 뿐 다른 곳은 상처 하나 없이 침묵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놀라운 안배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신자들은 다시 복구된 성전 중앙에 두 손이 없는 십자가를 그대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두 손이 없는 예수님께 새로운 손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이 없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모셔두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이 잘린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소년소녀가장들, 독거노인들 등등. 실의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이 되어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오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라고 **자선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필독**

2016년 제33회 자선 주일 담화문(요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2코린 5,14)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6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에 “하느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인류는 소중합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라는 외침으로 새해 벽두를 깨우시며 무관심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온 인류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자비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역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롭게 살자’(루카 6,36 참조)고 지속적으로 권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저 역시 지난해 자선 주일에 “우리의 자선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숨 가쁘게 살아온 한 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인권, 문화, 정치, 경제 등등 모든 면에서 수많은 위기와 난관들을 마주했고 또한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들에서도 힘을 합쳐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온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외치며 살아왔던 자비의 해를 잠시나마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그런 노력들로 내 삶은 조금 더 자비로워졌는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며’(마태 10,30 참조) 귀하게 여기시는 하느님의 가장 소중한 내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의 연대를 이루었는가? 구체적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자선을 실천하였는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 질문들과 되짚음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어쩌면 인류 평화와 화합을 외치는 교회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에, 저는 올해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주변을 자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돌아봅시다. 이 자비와 관심은 한 해의 운동이나 권고로, 해가 저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고 모든 인류가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또한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애덕 실천의 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 나가야 할 소중한 실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과소비와 무절제한 삶의 태도로 파괴되는 대자연에게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어 자비와 자선을 실천합시다. 불의와 핍박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자비와 자선을 실천합시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눔과 자선으로 자비를 이룩합시다. 그들의 목소리와 아픔에 함께 귀 기울이고, 손 내밀고, 자선을 실천한다면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합당한 준비이며 아기 예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며 우리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으로 강복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2016년 12월 11일, 자선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운회 주교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

정재춘 프란치스코 |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장

얼마 전 대구카리타스 설립 25주년 기념행사
에서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란 표
어가 가슴에 물음표를 하나 던졌다. '어떤 사
람에게 사랑이란 말이 잘 어울릴까?'

언젠가 들은 우화(寓話)인데, 어느 동물 마
을에서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져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이르렀다. 너무나
행복했던 둘은 서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
선을 다하라고 했다. 소가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다. 사자는 싫었
지만 참았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고기
를 소에게 대접했고,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다.
그 둘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서로가 힘들어져 가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지면서 서로가 말
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그렇다면 소와 사자의 문제는 무엇이었
을까? 그것은 상대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랑
할 줄 알았지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이
다. 결국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의 기술이
었다. 즉,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
다. 이 둘에게는 이기적 사랑만 있었을 뿐, 상
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전남 구례에 있는 고택(古宅) 운조루(雲鳥樓)
의 공간채에는 쌀뒤주가 놓여있고 '타인능해
(他人能解)'란 글자가 새겨져있다. 다른 사람들
이 쌀뒤주를 열 수 있다는 뜻이다. 굶주린 동
네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쌀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집주인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
웃 사랑에 따른 '나눔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의 더 큰 가치는 주민들이 쌀을
가져가는 모습을 안채에서 볼 수 없도록 설계

했다는 데 있다. 굶주린 이웃이 쌀을 가져가면
서 느낄지도 모르는 심상(心狀)을 배려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집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쌀을 가져가는 이웃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배려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타
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씀이다. 소와 사
자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운조루 주인과 같
은 마음 씀이다. 상대에 대한 마음 씀은 배려
의 본질이다. 배려가 없는 사랑은 마음 씀이
결여된 폭력이자 조롱일 뿐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
주 맞닥뜨리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
다. 가정과 사회, 국가 등 개인이나 집단과의
모든 관계에서 소통은 늘 일어난다. 별 탈 없
이 지낼 때 소통이 잘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된다고 한다. 소통이 안되는 이유
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이 배려이다. 배려는 사랑을 완성하는 기술이
고, 소통은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깊게 뿌리내린 신뢰 안에서 누군가의 침묵을
담아두며 소통의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침묵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으
로 무장되어 있기를 소망해 본다. 마치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다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침묵하셨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들과 구
원에 대한 소통이 흔쾌히 이루어진 것처럼.

자비의 희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서로 따
뜻한 배려를 통해 건강하게 소통하고, 예수님
을 닮은 '겸손과 섬김' 속에서 하나 된 마음으
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김민호**

교황님 이야기

교황청 기구Ⅱ



교황님은 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십니다. 교황님은 몸소 또는 사도좌의 통상 법원이나 당신께서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을 하십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외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 뿐만 아니라 내적 법정에 관련된 법원도 갖고 있습니다.

법원(法院)은 세 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와 같은 내적 법정과 대사(大赦)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내사원(內赦院)**, 한 국가의 대법원과 비슷한 교회의 최고 법원인 **대심원(大審院)**, 고등 법원으로 1, 2심, 그 이상의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원(控訴院)**으로 나뉩니다.

12개의 평의회(評議會)는 **평신도평의회**,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가정평의회**, **정의평화평의회**, **사회사목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보전사목평의회**, **교회법해석평의회**, **종교간대화평의회**, **문화평의회**, **사회홍보평의회**, **새복음화촉진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는 사도좌 공석시 세습 자산과 권리를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교황궁무처**, 교황청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지정된 사도좌의 고유한 재산을 관리하는 **사도좌재산관리처**, 성좌에 종속되어 있는 부서들의 재산 관리를 조정, 지도하고 예결산 심의를 비롯한 재무 관리 계획을 감독하며 주요 사업 계획을 심사 판정하는 **성좌재무심의처**까지 세 개의 사무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로는 교황궁 안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교황 알현 및 의전 절차 등을 관장하는 **교황궁내원**을 비롯해 교황님이 집전하거나 교황님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모든 전례를 비롯해 기타 거룩한 예식 거행에 필요한 모든 것, 추기경 서임, 주교 서품, 대수도원장의 축복식을 준비하고 교황 선출까지 주관하는 **교황전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교황청 기구와 사도좌 관련 단체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의 재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도좌재무원**과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교황청 공보실, 바티칸 통신,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바티칸 텔레비전 방송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바티칸 인쇄소, 사진부, 바티칸 출판사가 포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구들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한 **홍보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기구와 세계 주교 대의회, 세계 주교 협의회 등과 같은 각종 위원회와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



교구 행사

■ 서문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방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12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서문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를 방문해 대구시장과 중구청장을 만나고 재난구호성금을 전달하였다.

■ 내당성당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내당성당 설립 50주년 감사미사가 12월 4일(일) 오전 10시 30분 내당성당에서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말씀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든 성경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월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판매가: 1,500원 /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053)250-3082

2017 신앙다이아러리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2017년도 대구대교구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되었습니다.

판매가: 12,000원 /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팔서원, 성바오로팔 범어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폴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월성성당 성물방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미사	12월 12일(월) 19:00 4대리구청 회의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미사	12월 14일(수) 18:00 교구청 별관 302호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2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빈마음 성소 모임

일시: 12.18(일) 14:00

장소: 수원 본원 / (010)8833-8107

주최: 성빈센트드뽐자비의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무료 일일 피정

일시: 12.18(일) 10:00~17:00, 부산 본원

주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내어라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청년

다음카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문의: (010)4203-3217 / (010)9330-3104

제30차 친구약성경 통독 피정(한글·영어)

기간: 1.7(토)~15(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향심기도 피정

기간: 1.7(토)~8(일) 1박 2일

1.13(금)~15(일) 2박 3일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문의: 평화계곡피정집(소울스테이),

(010)5332-7587

2017년 맨발가르멜재속회원 모집

모집마감: 12.31(토)

첫째주 주일탐: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탐: (010)6655-0051

넷째주 주일탐: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탐: (010)8594-2655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예비모임: 1.24(화) 9:3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준비물: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대상: 성모님 안에서 살고픈 신자

문의: 담당수녀, (010)4622-4819

2017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소속: 서울대교구 산하기관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700~1

<http://www.jjscen.or.kr>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2017년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기간: 2017.7.22(토)~8.14(월)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주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접수: 12.27(화) 10:00부터

문의: (042)584-0654, 홈페이지

제4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2~2.12(6주, 장기 선택)

아일랜드·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창간 90주년 특가상품(1회 한정)

일자: 2.21(화), 발간반도

경비: 360만원(1박 12일)

문의: (02)2281-9070

<http://www.ct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신부 인솔)

주관: 일본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005-9028

교육 | 모집 | 기타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싱)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백 합 식 품

샬트르성마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품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피(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의**
www.misoindental.com **아산진료**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생 방학미사

일시: 12.18(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교육 | 모집

12월 가나 강좌

일시: 12.18(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2.11(일) 15:00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ME주말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7차ME주말: 1.6(금)~8(일)

348차ME주말: 1.20(금)~22(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입소 모집

시설구분: 실비 장애인 소규모거주시설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6개소)

대상: 성인 지적 장애인(30명)

이용료: 소득수준별 실비부담

문의: 사회재활교사 최희승, 721-7090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마감: 1.31(화) / uus@pauline.or.kr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터닝(동영상강의)학습

원서: <http://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 / 0840~3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모집: 12.23(금) / 문의: 660-5554~6

<http://conedu.cu.ac.kr>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기간: 1.10(화)~12(목) 2박 3일

대상: 본교 전입학에 관심 있는 초6~중2

문의: (054)338-0530

자비를 실천하는 복사, 전례캠프

기간: 1.9(월)~10(화)

1.11(수)~12(목)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주최: 살레시오수녀회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기간: 12.31(토) 출발 (4주, 8주)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상미(미카엘라)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바오로딸 범어서원 개원

개폐시간: (화)~(일) 11:00~19:30

공휴일 13:00~19:30, 월요일 휴무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지하 2층

주차장 입구 오른쪽

문의: 744-518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투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이 원 의 료 기

협일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휠체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곽연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성(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